

주거평형 규모에 따른 작업공간 구성체계에 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Residential Interior Spatial Structures According to the Size of Housing Units

- Multi - Dimentional Analysis for Household Activities -

이연숙** Lee, Yeun Sook
장순원*** Chang, Soon Won
안지영**** Ahn, Ji Yo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spatial structures for household activities according to the house size. Multi-Dimensional Scaling analysis was done, using questionnaire data from 349 middle income housewives living in apartment in the area of Capital region. This was an extended article of previous one.

In case of house whose size was less than 20 Pyung, washing cloth and bathing behavior took place in the same place whereas in other house size, bathing behavior was incorporated into various behaviors usually shown in the bedroom.

The ideal structure in the house of 20 Pyung's showed home office space closer to the bedroom area whereas in others it appeared independently.

1. 서론

주택은 거주자의 요구에 부응되었을 때 비로소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산업사회로 급속한 전환을 해왔으며 이에 따른 주택건설도 팽목할 만하다. 주택의 급격한 건설과 대량 공급은 아파트라는 집합주택 형태의 건설을 통해 가능하였다. 이 형태는 우리 문화적 특성에 대한 검토를 할 겨를도 없이 하나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형적인 양식인양 확산되어왔다. 이에따라 평면과 계획의 검토가 없이 대량건설이 진행됨에 따른 획일성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 발전 및 최근 정부의 대량 주택건설 정책은 소비자로 하여금 주택의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비판력을 키워왔으며 유래없는 주택시장 규모의 확대로 입주자에게 적합한 디자인 즉 소비자 유인가가 높은 디자인을 개발하지 않고는 주택건설업체의 생존 존립에 불안정을 초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지금은 뒤늦은 감이 있으나 집합주택의 평면이 보다 우리 문화적, 사용자 개인적 특성에 맞게 계획되어 제공되도록, 이들 관계를 탐구하는 연구가 필요한 단계에 와 있다. 이연숙외(1992)는 이러한 것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자 행위구조에 근거하여 주거공간의 특성을 제시하는 연구를 하였다. 그는 여기서 주거공간중에서도 미래 주요 디자인 대상이 될 공간은 작업행위를 수용하는 공간임을 지적하고, 이들간 구조를 다루어 현재 행위들의 구조 및 원하는 행위구조를 통해 이상적인 주거공간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때 조사대상이 된 기구의 평형범위는 중산층이나 20평이하에서 30평이상까지 비교적 넓은 범위로서 모두 하나의 중산층이란 집단으로 간주 분석되었다. 그러나 실제 평면개발에 보다 이 구조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형규모별 비교 분석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평형규모별로 작업행위를 수용해 주는 공간의 구조적 요구*를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문헌 고찰

본 연구는 사용자 특성에 대응하는 평면계획 연구로서 그 사용자 특성 개념에는 특히 문화적 특성과 사용자가 거주하는 주택규모 특성을 강조하였다. 주거공간 또는 주거공간외 부분적 특성을 평형규모별 요구로 관련지어 비교 분석한 연구는 없었으므로 본 문헌고찰에서는 문화권별 평면특성에 대해 언급한 이연숙외(1992)의 문헌연구 부분과 이 연구의 실증적 조사결과 부분을 요약하고자 한다. 우선 문헌연구 부분에서 다른 외국의 평면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로렌스(1980, 1981, 1982, 1983)는 주거공간의 의미와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사회적 요소들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그는 영국과 호주 두 나라의 문화적, 사회적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주택공간과 설비의 의미와 용도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영국, 호주 두 나라 주택평면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작업, 위생공간으로, 호주에서는 물을 쓰는 행위인 요리와 세탁이 같은 부류행위로 간주되지 않고 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며 부엌은 요리외에 가족간 사회작용을 수용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영국에서는 요리와 세탁행위가 부엌공간에 통합되어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이연숙외(1992)는 영국의 경우에서 물을 사용한다는 점과 작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 특성으로 해석하였다.

이연숙외(1992)는 문헌에서 나타난 일본의 단독주택, 집합주택의 주택평면들을 살펴본 결과 일본 주택에서 나타난 작업, 위생공간의 가장

*본 연구는 주식회사 청구와의 산학협동 연구인 "수도권 신주거 계획지역 거주 예정자의 특성 및 주거환경적 성향에 관한 연구"의 내용중 일부임.

본 연구는 본학회 논문집 창간호에 실린 논문의 후속연구임.

** 부회장, 연세대학교 주생활학과 부교수, Ph.D.

*** 정회원, 연세대학교 생활과학 연구소 연구원. 상명여대 강사.

**** 정회원, 연세대학교 생활과학 연구소 연구원.

*공간의 구조적 요구란 어떤 공간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존재'를 칭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공간과의 연결 관계 즉 구조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를 말함.

두드러진 성향은 변소, 욕실, 세면실이 한곳에 모여있으나 하나의 공간 형태로 있지 않고 이 세 공간들이 대개 분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일본주택에서 위생공간의 위치는 개인실과 인접해 있기 보다는 부엌(작업공간)이나 공동공간과 인접해 있는데, 부엌과 인접한 경우는 부엌과 위생공간 모두가 물을 사용하므로 서로 인접한 공간에 위치하게 한 것으로 보였다.

한편 미국주택의 작업, 위생공간의 전반적인 성향은 욕실, 부엌, 변소, 탈의, 세탁실이 모두 인접해 있는 일본의 주택과는 달리, 욕실은 개인공간인 침실쪽에 통합되어 있고 다용도실 개념이 욕실과 분리되어 있는 반면 오히려 부엌과 인접 혹은 통합되어 있었다. 미국주택에서 위생공간의 위치는 개인실에 인접해 있으며 세탁실은 일본처럼 욕실이나 세면실에 밀접해 있지는 않으며 일본의 일관성에 비해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난다 할 수 있다. 일본은 세탁장소를 탈의와의 관련을 강조하여 욕실/세면실 근처에 두었다면 미국은 작업영역 내에 두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미국의 경우 차고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입구 등에 세탁기를 둔 특성들은 미국 문화권에서만 보여지는 예라 할 것이다.

이연숙의(1992)는 작업행위를 수용하는 공간적 구조를 수도권 신주거계획지역 거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탐구하였으며, 행위간 구조분석을 통해 공간구조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현재 주거공간의 구조적 특성과 이상적으로 원하는 주거공간의 구조적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행위발생의 공간구조는 내의 갈아 입는 곳, 일상적인 걸옷이나 외출복을 입고 벗는 곳, 화장하는 곳, 머리 드라이기를 사용하는 곳 및 가계부를 정리하는 곳, 빨래 개는 곳, 다림질 및 옷손질기 하나로, 식사하는 곳, 일상식사 준비 및 설거지 하는 곳, 김치 등 집안의 비일상적인 행사때 음식준비 및 설거지 하는 곳이 하나로, 빨래하는 곳이 하나로, 목욕/세면하는 곳이 하나로, 빨래 말리는 곳이 하나로 묶였다. 행위발생의 공간구조와 행위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공간 분포를 대응시켜 보았을 때, 우리나라 아파트의 구조는 침실, 거실, 욕실, 부엌 및 식당, 다용도실, 발코니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공간에 기대되는 행위는 반드시 그 공간과 일치되어 일어나고 있지는 않았다. 즉, 위생공간인 욕실에서 빨래하는 작업행위와, 가족단란인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손질하는 작업행위가 기대되는 다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예라 할 수 있다.

행위발생의 이상적인 공간구조는 첫째, 내의 갈아 입는 곳, 일상적인 걸옷이나 외출복을 입고 벗는 곳, 목욕/세면하는 곳, 화장하는 곳, 머리 드라이기를 사용하는 곳이 하나로, 둘째, 빨래 개는 곳과 다림질 및 옷손질 하는 곳이 하나로, 셋째, 빨래 하는 곳과 빨래 말리는 곳이 하나로, 넷째, 가계부를 정리하는 곳이 하나로, 다섯째, 일상식사 준비 및 설거지 하는 곳과 식사하는 곳, 그리고 김치 등 집안의 비일상적인 행사때 음식준비 및 설거지 하는 곳이 하나로 묶였다.

이상과 같은 현재의 구조와 이상적인 구조를 비교한 결과 앞으로의 개선의 방향을 제언하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욕실에서 일어나는 세탁행위는 욕실로부터 분리되어야 하고, 부엌, 식당과도 분리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가계부 정리 등 가사를 관리하는 사무적 업무 등은 침실에서 일어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공간이 주부의 영역성을 제공해 주는 새로운 공간개념으로 등장하므로 이를 위한 공간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의 세탁기의 위치는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일본에서는 주로 욕실공간 근처에, 미국에서는 부엌근처에 위치시키나, 우리나라는 욕실과 부엌 어느곳에도 통합되지 않는 제 3의 연결 공간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 주위로 빨래를 개고, 말리고, 다리는 행위들이 집약적으로 모여 있으므로, 물 쓰는 작업과 물을 쓰지 않는 작업공간을 하나의 체제로 잘 연결시켜 주

는 구성이 필요하다. 특히 미래 건조기의 사용이 보편화될 경우 이런 공간구성은 더욱 현실화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넷째, 위생행위는 개인 관리 행위와 통합되어 있으므로 욕실과 개인공간의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체계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3. 연구 방법

이 논문은 앞서 선행연구(이연숙의 2인, 1992)의 자료를 추가분석한 것이므로 자료가 수집된 과정 및 측정도구는 같으며 통계적 분석방법도 같으나 현재 거주면적에 따른 작업공간 관련행위 발생공간의 구조를 밝히기 위해 20평이하, 20평대, 30평이하의 3집단으로 나누어 작업공간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구체적 연구방법의 내용은 선행 연구를 참조할 수 있으므로 간략히 요약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수도권지역 중산층 가구 349주부였으며 우편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내용은 13개 작업공간의 관련행위들을 2개씩 쌍으로 제시, 유사성 거리개념에서 측정하여 집락분석 및 다차원 척도 분석을 하기 위해 systat 을 사용하고자 한다.

4. 조사 결과 및 논의

4-1. 응답자의 특성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응답가구의 가구주인 남편의 평균 연령은 42.5세이며, 부인의 평균연령은 39.0세였다. 가족수는 평균 4.1명, 자녀수는 평균 1.9명이었다. 가족생활 주기는 만자녀가 취학전인 형성기가 31.5%로 가장 많고, 만자녀가 대학생인 확대말기와 만자녀가 국민학생인 확대초기가 그 다음으로 비등하게 나타났다. 남편의 학력은 대학졸업 이상이 60.4%의 비율을 보였다. 남편 직업은 사무직이 33.1%로 가장 많고, 취업 부인의 비율은 18.6%를 차지하였다. 월평균 수입은 80~160만원 미만이 전체의 59.3%이며, 월평균 생활비는 40~120만원 미만이 전체의 71.2%를 차지하였다.

주거배경 특성을 보면 현주택의 거주면적은 아파트 및 연립주택인 경우 평균은 25.7평, 단독주택은 평균이 20.3평이다. 가족이 사용하고 있는 평균 방의 개수는 2.6개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서울 시내가 75.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분양신청평수는 평균 35.9평으로 나타났다.

4-2. 현재 거주 평형규모별 작업공간 관련 행위발생 공간의 구조에 대한 현실과 선호

1) 현재 거주면적 20평이하인 집단의 작업공간 관련 위생 행위 발생 공간의 구조

현재 거주 면적 20평이하인 집단의 현재 및 이상적인 작업공간 행위 발생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13종류의 행위들을 집락분석 및 다차원 분석한 결과에 표현한 것은 <그림 1>,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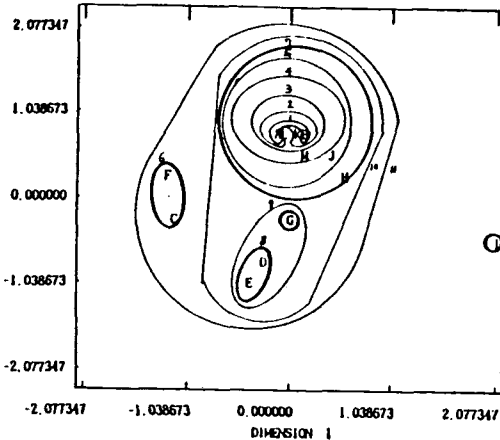
한편 MDS의 순수한 결과는 <그림 1>, <그림 2>에서 곡선으로 그려진 부분을 제외한 행위 발생장소의 분포만이 나타난 그림인데, 이 결과 위에 집락분석의 결과 나타난 먼저 묶이는 순서대로 묶어 나가는 작업을 곡선으로 표현하고 묶여진 순서를 번호를 기입하였다.

MDS로 나타난 그림의 Stress 값은 현재는 .09720, 이상적인 구조에서는 .01064이었다.

Stress 값이란 다차원상의 분포가 2차원적인 도면으로 나타날 때 불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그 값은 0~1 사이의 범위를 가지며, 이 값이 클수록 2차원적 평면에 나타나는 분포구조는 실제 다차원 공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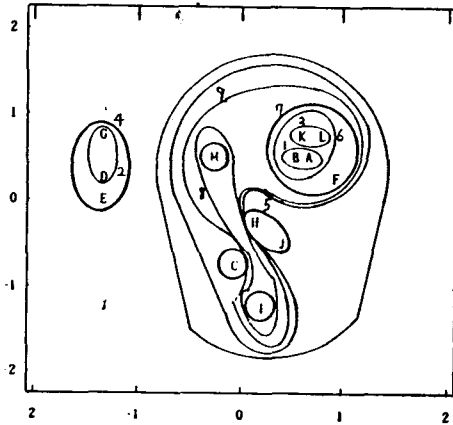
서의 분포구조를 잘 표현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Stress 값은 각각 .09720, .01064이었으므로 실제구조가 2차원 평면에 잘 표현되고 있다 하겠다.

IDIMENSION 2 (eignd2)



(그림 1) 현 거주면적 20평이하인 집단의 현재 작업공간 구조: 다차원 척도 및 집락분석 결과

IDIMENSION 2 (eignd2)



(그림 2) 현 거주면적 20평이하인 집단의 이상적인 작업공간 구조: 다차원 척도 및 집락분석 결과

(1) 현재의 작업공간 관련행위 발생공간의 구조

이들 구조는 공간의 구획을 몇 개로 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으나, 현재 이들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의 특성을 참고하여 집락을 5개로 나누어 보면 곡선중 진하게 표현한 것과 같다. 현재 13개 행위발생의 공간구조중 ① 내의 갈아입는 곳, 일상적인 걸옷이나 외출복을 입고 벗는 곳, 화장하는 곳, 머리 드라이기를 사용하는 곳이 하나로, ② 빨래를 개는 곳, 다림질 및 옷손질 하는 곳, 가계부를 정리 하는 곳이 하나로, ③ 식사하는 곳이 하나로, ④ 일상식사 준비 및 설거지하는 곳, 김치 등 집안의 비일상적인 행사 때 음식준비 및 설거지를 하는 곳이 하나로, ⑤ 목욕/세면하는 곳, 빨래하는 곳이 하나로, 빨래 말리는 곳이 하나로 묶였다.

(2) 이상적인 작업공간 관련행위 발생공간의 구조

현재 13개 행위발생 공간구조는 ① 내의 갈아입는 곳, 일상적인 걸옷이나 외출복을 입고 벗는 곳, 화장하는 곳, 머리 드라이기를 사용하는 곳, 목욕/세면하는 곳이 하나로, ② 빨래를 개는 곳, 다림질 및 옷손질 하는 곳이 하나로, ③ 빨래하는 곳이 하나로, ④ 빨래 말리는 곳이 하나로, ⑤ 가계부를 정리하는 곳이 하나로, ⑥ 일상식사 준비 및 설거지하는 곳, 식사하는 곳, 김치 등 집안의 비일상적인 행사 때 음식준비 및 설거지 하는 곳이 하나로 묶였다. 여기에서의 발생구조를 보면, 동시단계에 나타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6개의 집락구조를 나타내었다.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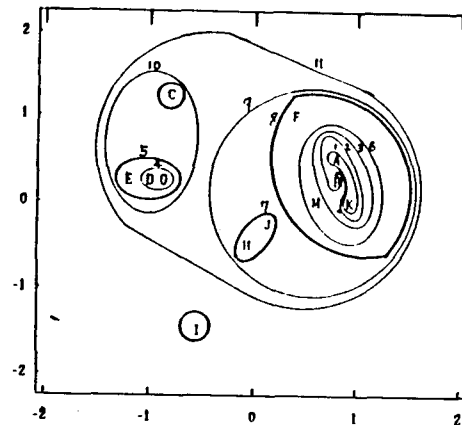
적인 행위발생 공간구조는 현재의 공간처럼 행위가 발생하는 기존 공간의 분포와 비교해서 논할 수가 없고, 이것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떤 공간이 어떻게 출현되거나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3) 현재와 이상적인 작업공간 관련 위생행위 발생공간의 구조비교

현재 거주 면적 20평 이하인 집단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13개의 행위가 발생하는 공간구조와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공간 구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빨래하는 행위가 목욕공간으로부터 분리되어 목욕행위는 개인위생 및 관리행위와 묶였다. 둘째, 주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 내 사무공간이 개인공간과 작업공간 사이에 독립적으로 출현하였다. 셋째, 빨래를 개고 다림질을 하는 공간이 개인공간과 근접하기 보다는 빨래를 하고 말리는 공간에 보다 근접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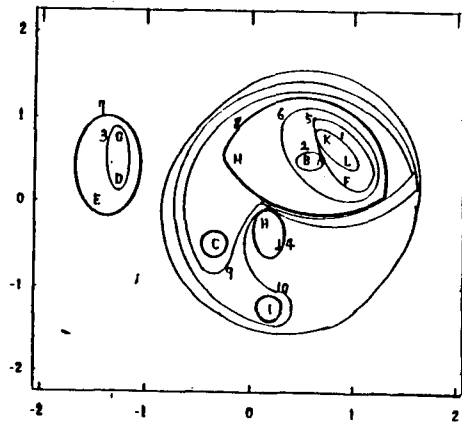
즉, 이 결과를 근거로 현재의 공간구조에서 20평 이하의 주택규모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의 욕실에서 일어나는 세탁행위는 욕실로부터 분리되어야 하고, 식당과도 분리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세탁기의 위치는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일본에서는 주로 욕실공간 근처에, 미국에서는 부엌 근처에 위치시키나, 우리나라는 욕실과 부엌 어느 곳에도 통합되지 않는 제 3의 공간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 공간 주위에 빨래를 개고, 말리고, 다리는 행위들이 집약적으로 모여 있으므로, 물쓰는 작업과 물을 쓰지 않는 작업은 하나의 체제로 잘 연결시켜주는 구성이 필요하다. 위생행위는 개인관리 행위와 통합되어 있으므로 욕실과 개인공간의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체계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현재 가계부 정리 등 가사를 관리하는 사무적 업무 등은 침실에서 일어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공간이 주부의 영역성을 제공해 주는 새로운 공간개념으로 등장하므로 이를 위한 공간

IDIMENSION 2 (eignd3)



(그림 3) 현 거주면적 20평대인 집단의 현재 작업공간 구조: 다차원 척도 및 집락분석 결과

IDIMENSION 2 (eignd3)



(그림 4) 현 거주면적 20평대인 집단의 이상적인 작업공간 구조: 다차원 척도 및 집락분석 결과

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엌보다는 개인 공간에 근접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

2) 현재 거주 면적 20평대인 집단의 작업위생 행위 발생공간의 구조
 현재 거주면적이 20평대인 집단의 경우 그 결과는 <그림 3>, <그림 4>와 같으며 그 stress 값은 .07940, .09722로서 실제구조가 2차원 평면에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현재의 작업공간 관련 행위발생 공간의 구조

현재 13개 행위발생 구조는 ① 내의 갈아입는 곳, 일상적인 걸옷이나 외출복을 입고 벗는 곳, 화장하는 곳, 머리드라이기를 사용하는 곳, 가계부를 정리하는 곳, 목욕/세면하는 곳이 하나로, ② 빨래를 개는 곳, 다림질 및 옷손질 하는 곳이 하나로, ③ 김치 등 집안의 비일상적인 행사때 음식준비 및 설거지를 하는 곳, 일상식사 준비 및 설거지 하는 곳, 식사하는 곳이 하나로, ④ 빨래하는 곳이 하나로, 빨래 말리는 곳이 하나로 묶였다.

(2) 이상적인 작업공간 관련행위발생 공간의 구조

현재 13개 행위발생 공간구조는 ① 내의갈아 입는 곳, 일상적인 걸옷이나 외출복을 입고 벗는 곳, 목욕/세면하는 곳, 화장하는 곳, 머리드라이기를 사용하는 곳, 가계부를 정리하는 곳이 하나로, ② 빨래를 개는 곳, 다림질 및 옷손질 하는 곳이 하나로, ③ 일상식사 준비 및 설거지 하는 곳, 김치 등 집안의 비일상적인 행사때 음식준비 및 설거지 하는 곳, 식사하는 곳이 하나로, ④ 빨래하는 곳이 하나로, 빨래말리는 곳이 하나로 묶였다.

(3) 현재와 이상적인 작업공간 관련 행위발생공간의 구조비교

현재 거주 면적이 20평대인 집단에 대해 13개의 행위들이 일어나는 현재의 공간구조와 이상적이라 생각되는 공간구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빨래하는 행위가 부엌 및 식당공간에 근접해 있던 것이 빨래 말리는 곳, 빨래 개는 곳, 다림질 및 옷손질 하는 곳과 근접해 있다. 둘째, 빨래를 개고 다림질을 하는 공간이 개인공간에 근접하기 보다는 빨래를 하고 말리는 공간에 보다 근접해 있고 부엌 가사작업 공간보다는 개인공간에 근접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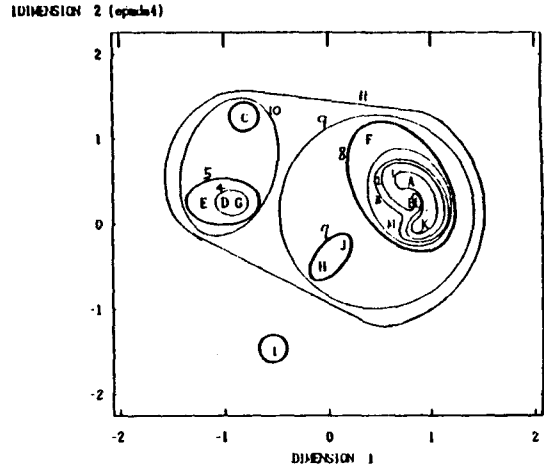
즉, 이 결과를 근거로 현재의 공간구조에서 20평대 주택을 위해 미래를 향한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의 욕실에서 일어나는 세탁행위는 욕실로부터 어느정도 분리되어야 하고, 식당과도 분리되어야 하며 욕실과 부엌 어느 곳에 통합되는 것이 아닌 제 3의 연결공간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 주위로 빨래를 개고, 말리고, 다리는 행위들이 집약적으로 모여 있으므로, 물쓰는 작업과 물을 쓰지 않는 작업공간은 하나의 체제로 잘 연결시켜주는 구상이 필요하다. 위생행위는 개인관리행위와 통합되어 있으므로 욕실과 개인공간의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체계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3) 현재 거주면적 30평대 이상인 집단의 작업 위생 행위 발생 공간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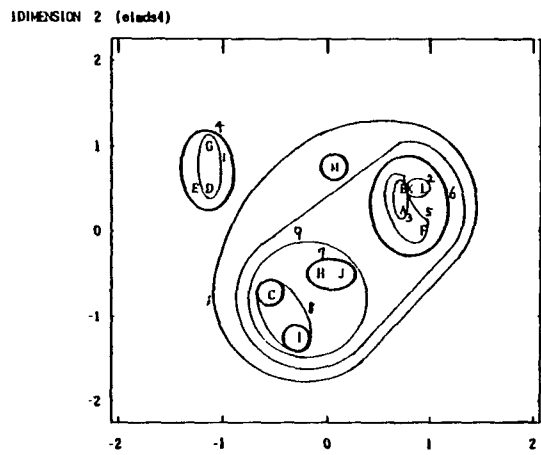
거주면적이 30평대 이상인 집단의 경우 연구결과는 <그림 5>, <그림 6>과 같으며 stress 값은 각각 0.07940, 0.09101로서 실제구조가 2차원 평면에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현재의 작업공간 관련 행위발생 공간의 구조

현재 13개 행위발생 공간구조는 ① 내의 갈아입는 곳, 일상적인 걸옷이나 외출복을 입고 벗는 곳, 화장하는 곳, 머리 드라이기를 사용하는 곳, 가계부를 정리하는 곳, 목욕/세면하는 곳이 하나로, ② 빨래를 개는 곳, 다림질 및 옷손질 하는 곳이 하나로, ③ 김치 등 집안의 비일상적인 행사때 음식준비 및 설거지를 하는 곳, 일상식사 준비 및 설거지 하는 곳, 식사하는 곳이 하나로 ④ 빨래하는 곳이 하나로, ⑤ 빨래 말리는 곳이 하나로 묶였다. 여기에서의 발생구조를 보면, 동시에 나타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6개의 집락구조를 나타내었다.



(그림 5) 현 거주면적 30평대 이상인 집단의 현재 작업공간 구조 : 다차원 척도 및 집락분석 결과



(그림 6) 현 거주면적 30평대 이상인 집단의 이상적인 작업공간 구조 : 다차원 척도 및 집락분석 결과

(2) 이상적인 작업 위생행위 발생 공간의 구조

현재 13개 행위발생의 구조는 ① 내의 갈아 입는 곳, 일상적인 걸옷이나 외출복을 입고 벗는 곳, 목욕/세면하는 곳, 화장하는 곳, 머리 드라이기를 사용하는 곳이 하나로, ② 가계부를 정리하는 곳이 하나로 ③ 빨래 개는 곳과 다림질 및 옷손질 하는 곳이 하나로, ④ 식사하는 곳, 일상식사 준비 및 설거지 하는 곳, 김치 등 집안의 비일상적인 행사때 음식준비 및 설거지를 하는 곳이 하나로, ⑤ 빨래하는 곳이 하나로, ⑥ 빨래 말리는 곳이 하나로 묶였다.

(3) 현재와 이상적인 작업공간 관련 행위발생 공간의 구조비교

현재 거주면적 30평이상인 집단에 대해 13개의 행위들이 일어나는 현재의 공간구조와 이상적이라 생각되는 공간구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빨래하는 행위가 빨래 말리는 행위와 근접해 있다. 둘째, 주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 내 사무공간이 개인공간과 작업공간 사이에 독립적으로 출현한다. 셋째, 빨래를 개고 다림질을 하는 공간이 개인공간과 근접하기 보다는 빨래를 하고 말리는 공간에 보다 근접해 있고 부엌가사 작업공간에 보다는 개인공간에 근접해 있다.

즉, 이 결과를 근거로 현재의 공간구조에서 30평대 주택을 위해 미래를 향한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가계부 정리 등 가사를 관리하는 사무적 업무 등은 침실에서 일어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공간이 주부의 영역성을 제공해 주는 새로운 공간개념으로 등장하므로 이를 위한 공간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엌보다는 개인공간에 근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세탁은 부엌으로부터 분리하여 현재의 세탁기의 위치는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일본에서는 주로 욕

(표 1) 현재 거주평형 규모별 작업 위생행위 구조

변인명		현재의 작업·위생행위 구조	이상적인 작업·위생행위 구조
전체 응답자		ABKLMHJ, DGE, C, F, I	ABKLF, HJ, DGE, M, CI
현재거주	20평이하	ABKLMHJ, DE, G, I, CF	ABKLF, HJ, DGE, M, C, I
	20평대	ABKLMF, HJ, DGE, C, I	ABKLFM, HJ, DGE, C, I
평형규모	30평이상	ABKLMF, HJ, DGE, C, I	ABKLF, HJ, DGE, M, C, I

- A : 내의 갈아 입는 곳
 B : 일상적인 걸옷이나 외출복을 입고 벗는 곳
 C : 빨래하는 곳
 D : 일상적인 식사 준비 및 설거지 하는 곳
 E : 김치 등 집안의 비일상적인 행사때 음식 준비 및 설거지를 하는 곳
 F : 욕욕/세면하는 곳
 G : 식사하는 곳
 H : 빨래 개는 곳
 I : 빨래 말리는 곳
 J : 다림질 및 옷소질 하는 곳
 K : 화장하는 곳
 L : 머리 드라이기를 사용하는 곳
 M : 가계부를 정리하는 곳

실공간 근처에, 미국에서는 부엌 근처에 위치시키나, 우리나라는 욕실과 부엌 어느곳에 통합되는 것이 아닌 제 3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 주위로 빨래를 개고, 말리고, 다리는 행위들이 집약적으로 모여 있으므로, 물쓰는 작업과 물을 쓰지 않는 작업공간은 하나의 체제로 잘 연결시켜주는 구상이 필요하다. 위생행위는 개인관리 행위와 통합되어 있으므로 욕실과 개인공간의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체계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5. 종합 논의 및 결론

한국적 주거문화를 검토하고 미래 평면계획에의 반영을 위해 다루어졌던 작업공간 구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평형규모별로 종합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먼저, 현재의 공간구조에서 20평이하의 주택을 위해 앞으로 고려해야 할 방향은 첫째, 현재의 욕실에서 일어나는 세탁행위는 욕실로부터 분리되어야 하고, 빨래를 개고, 말리고, 다리는 행위들이 집약적으로 모여 있으므로, 물쓰는 작업과 물을 쓰지 않는 작업을 하나의 체제로 잘 연결시켜주는 구성이 필요하며, 현재 가계부 정리 등 가사를 관리하는 사무적 업무 등은 침실에서 일어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공간이 주부의 영역성을 제공해 주는 새로운 공간개념으로 등장하므로 이를 위한 공간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평대 주택에서는 세탁행위가 욕실로부터 어느 정도 분리되어야 하고, 식당과도 분리되어야 하며 욕실과 부엌 어느 곳에 통합되는 것이 아닌 제 3의 연결공간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 주위로 빨래를 개고, 말리고, 다리는 행위들이 집약적으로 모여 있으므로, 물쓰는 작업과 물을 쓰지 않는 작업공간은 하나의 체제로 잘 연결시켜주는 구상이 필요하다.

셋째, 30평대 주택은 현재 가계부 정리 등 가사를 관리하는 사무적 업무 등이 침실에서 일어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공간이 주부의 영역성을 제공해 주는 새로운 공간개념으로 등장하므로 이를 위한 공간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세탁은 부엌으로부터 분리하여 현재의 세탁기의 위치는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일본에서는 주로 욕실공간 근처에, 미국에서는 부엌 근처에 위치시키나, 우리나라는 욕실과 부엌 어느 곳에 통합되는 것이 아닌 제 3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 주위로 빨래를 개고, 말리고, 다리는 행위들이 집약적으로 모여 있으므로, 물쓰는 작업과 물을 쓰지 않는 작업공간은 하나의 체제로 잘 연결시켜주는 구상이 필요하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개인관리 및 위생행위는 평면규모에 관계없이 욕실과 개인공간의 관계가 밀접하게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과 빨래 개고, 다림질 하는 행위가 빨래를 하고 말리는 공간과 밀접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평형별 차이점을 보면, 20평 이하와 30평 이상에서는 주거 내 사무공

간이 개인과 작업공간 사이에 독립적으로 출현하나 20평대에서는 개인관리 및 위생행위가 일어나는 곳에 사무공간이 나타났다. 20평대에서는 빨래하는 행위가 빨래 개고, 다림질 하는 행위와 밀접하나 30평 이상에서는 빨래 말리는 곳과 밀접하다.

이상을 토대로 하여 제안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용자 특성으로서 그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평형규모를 고려한 연구이다. 거주인의 행태 및 요구는 주어진 공간에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생활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는 가족구성적 특성도 중요하므로 이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가족생활주기별로 세분한 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실제 디자인 아이디어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 나타난 공간구조는 공간에서 나타난 각 행위간의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접근가능성을 나타내 준 거리구조이므로 주어진 공간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고 창조적인 실내디자인을 위해 시각적 구체화 작업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연숙, 장순원, 안지영, '주거실내공간 계획을 위한 다차원 구조적 접근-작업행위와 관련된 공간의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 실내디자인학회지 창간호, 1992, Vol 1. No. 1.
 P. A. Bell, J. D. Fisher, A. Baum and T. C. Greene, 'Environmental Psychology',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90.
 R. Lawrence, 'Houses and People : A Cross Cultural Perspective', Cultures, 7, 1980, pp 150~169.
 R. Lawrence, 'Mean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 Spatial and Temporal Perspectives through the Simulation of Domestic Space'. In R. Thorne & S. Arden (Eds.) People and the Man-made Environment. Sydney : Department of Architecture, University of Sydney, 1980.
 R. Lawrence, 'The Optimization of Habitat', Open House, 1981, p. 6(3), pp. 35~43.
 Lawrence, R. 'A Psychological - Spatial Approach for Architectural Design and Research',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982, p. 2, pp. 37~51.
 R. Lawrence, 'Domestic Space and Society : A Cross - Cultural Study',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1982, p. 24, p. 1, pp. 104 ~130.
 R. Lawrence, 'The Comparative Analyses of Homes : Research Method and Application', Social Science Information, 1983, p. 22, p. 3, pp. 461~485.
 R. Lawrence, 'Understanding the Home Environment : Spatial and Temporal Perspectives' International Journal for Housing Sciences and its Applications, 1983, p. 7, p. 1, pp. 13~25.
 三川榮吉. 住宅のテ"サ"インと製圖, 彰國社, 1988.
 岸本幸●臣外, 住まい讀みテ"サ"インする, 彰國社, 1985.
 林 和子外. 住まい方から 住空間 テ"サ"インする, 彰國社, 1989.

〈접수 : 1993. 3. 30〉